

# 법원, 쫓 회고록 5·18 왜곡 표현 삭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진두환(87)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 법원이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인쇄·발행·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전 씨 등은 원고 중 오월단체들에게 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월단체 등은 "역사왜곡은 더 이상 안된다"며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상징적 의미로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비상계엄의 확대 및 과잉진압행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일 수 있고,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 활동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각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 사실과 다른 서술 다른 견해 고증 거친 객관적 자료 기초해야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18기념재단 등은 압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 째로 제출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

오월 단체 등 원고가 삭제할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해당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법정에서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이다"며 명

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역사 왜곡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지난해 4월8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시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로 예정돼 있던 형사재판에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형사재판은 오는 10월1일로 예정돼 있다.

주춘정 기자



두바이발 인천행 항공기 소독 13일 오후 인천 중구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메르스 관련 예방을 위해 두바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 광주지검, 외국인 마약사범 23명 적발

다수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검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중국 국적 20명, 태국 국적 2명, 미국 국적 1명 등 외국인 2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7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5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국내 거주 외국인 사이 필로폰 매매나 투약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인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집중 단속에 나

는 기존 투약 방법이 아닌 가열과 빨대·물병을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은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3년 39명, 2014년 55명, 2015년 64명, 2016년 95명, 2017년 93명, 올해 상반기만 53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전체 마약사범(내국인 포함)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4명, 2016년 22명, 2017년 160명, 올해 상반기 121명이다

단속에 적발된 중국인들의 경우 필로폰을 주사나 음료수에 타 마시

## 가정폭력 조사받은 경찰관, 음주운전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안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2)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12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운전면허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A 경위는 또 같은 날 가정폭력 신고로 광주 모 지구대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끝나는데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 웃놀이 도박장 운영 40대 조폭 등 2명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웃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구모(46)씨와 도박꾼 문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영산강과 광주전변 공영 주차장 등지에 불법으로 웃놀이 도박장을 개설해 수수료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노인들을 웃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돈을 나눠 돈을 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탄 돈의 1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도박판을 벌였다. 600만원 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조회 결과를 토대로 8000만원 상당을 도박 수익금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아파트 계약금 명목 돈 가로챈 60대 영장

영광경찰서는 12일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2시30분께 영광군 한 수산물 판매점 주인에게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가로챈 등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광주·영광·나주지역 상인 5명에게 총 200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김씨는 자신을 교사라고 속인 뒤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처음 본 상인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발령난 교사다. 주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인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다.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교사 행세를 하려고 정장을 입고 다녔으며, 안면이 있는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인천 아파트 화단서 여중생 숨진채 발견

인천 한 고층아파트에서 여중생이 투신해 숨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화단에 A양(15)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양의 책상 위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경찰에서 친구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아이의 SNS에 안 좋은 댓글을 많이 올려 힘들어했다는 주변 친구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골 야산서 대마 재배한 40대 구속영장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 설천면의 한 야산에서 대마 488kg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이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증,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